



# Autumn in Jazz

## 강윤숙의 재즈 선율

재즈피아니스트 강윤숙의 연주를 듣고 있으면 형형색색 심상이 마음을 누빈다. 자연 풍광을 모티브 삼은 자작곡 'A green field'에서는 초록의 신록이, 생동감 넘치는 'VIGOR(활력)'는 성하의 신열과 붉은 열기가 느껴진다.

라틴 향기가 베어 있는 'First melody', 음표를 세 박자로 묶는 3그룹의 묘미가 깃든 'Grouping'은 또 어떤가. 음악적 규칙성과 자유분방 사이 어느 지점을 상징하는 듯한 강윤숙의 재즈 선율은 이번 공연에 기대감을 품게 한다.

리디안팩토리(대표 강윤숙)가 'Autumn in Jazz'를 8일 오후 7시 30분 광주서빛마루문예회관에서 펼친다. 강 씨 데뷔 20주년을 기념해 그의 재즈 창작곡을 지역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자리다.

호신대 및 동대학원, 백석대 대학원을 졸업하고 2010년 미국 Musicians institute KIT Encore를 수료한 강윤숙은 지역을 중심으로 예술활동을 펼쳐왔다. 현재 호신대-광신대 초빙교수로 재직 중이며 전문예술단체 강윤숙의 재즈여행, 연주단체 리디안팩토리를 창단했다.

강 씨는 "총 일곱 편의 창작곡과 함께 대중적인 곡 세 편을 연주할 예정"이라며 "재즈의 문턱을 낮추고 관객에게 편안하게 다가가고 싶은 마음을 투영, 기성 곡과 자작곡을 섞어 레퍼토리를 구성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섬세한 테크닉을 갖춘 뮤지션들과 함께하는 이번 공연을 통해 재즈의 진수를 느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공연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노래'를 표방하는 'Feel the sameway'로 막을 올린다. 이어지는 'A green field'는 강 씨가 1년여 전 빌딩이 없는 동네로 이사하며 느꼈던 생명의 순환, 망중환의 감

### '데뷔 20주년' 창작곡 등 무대 "재즈 문턱 낮추고 관객과 호흡" 오늘 광주서빛마루문예회관 무료

성을 악곡에 녹였다.

'Grouping'은 라인 클리셰(흔히 사용되는 세련된 선율)와 어우러지는 반도네오 멜로디가 이목을 끈다. 악구를 자유롭게 분절하는 프레이징 기법은 베이스와 드럼 본연의 리듬에 귀 기울이게 한다. 반도네오 연주에 김태은(광주예술중3).

음악에 대한 열망을 묘사한 'Sparkling'도 곡목에 있다. 생명력 있게 약동하는 음계들은 강 씨가 어릴 적부터 품어왔던 예술에 대한 열정을 대변한다. 호신대 교수로 재직 중인 김은영의 보컬과 함께 들려주는 '볼라레', 도지 테리 곡 '헤이 바텐더'도 울려 퍼진다. 이 밖에 케니 바론이 연주했던 'Hush a by', 단음계 선율의 비장미가 분위기를 끌고 가는 3집 수록곡 'Mystery'도 관객들을 만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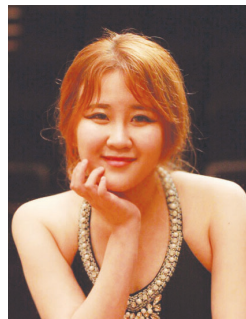
협연자로 출연하는 예술가들의 면면도 익숙하다. 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활동하는 관현악 파트 연주자들이 힘을 맞춘다.

호신대 음악학과 교수인 알토 색소포니스트 박수용을 비롯해 광신대 음악학부 교수 김성광(베이스)이 무대에 오른다.

M.net '더 마스터'에서 윤희정밴드의 곡을 편곡·연주했던 황태용은 테너 색소폰과 플루트를, KBS관현악단에서 활동한 콘스탄틴 드로비코가 트럼펫 선율을 더한다.



색소포니스트 박수용



보컬리스트 김은영

바이올린은 전남대 출신 이도윤, 김하라, 한예중 출신 이수산과 국제 재즈하게학교에서 공부한 김하성이 연주한다. 광주예고와 전남예고를 졸업한 양은지와 서윤아도 각각 비올라 선율을 들려줄 예정이다.

첼로는 전남대 음악학과와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립대 출신 조혜원,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국립 음악원 학·석사과정 중인 이상주가 맡는다. 최수희(편곡), 김수근(기타), 이한진(트롬본) 및 윤영훈(드럼)도 멜로디를 더한다.

강 씨는 "음의 색다른 활용을 통해 개성 있는 음악의 빛깔을 빚어 나가는 것이 앞으로의 목표"라며 "가스펠, 가요, 플루트, 첼로 음악 등을 직접 작·편곡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관객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음악을 펼치겠다"고 했다.

이외 강 씨는 퓨전국악밴드 '화양연화', 크로스오버 앙상블 '클래즈 앙상블' 단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2018년 정규 1집 'Feel the same way'를 시작으로 2집 'Sing for the moment' 등 음반을 발매했다. 전석 조대. /최류빈 기자 rubi@

## 대학생들의 '오색윤슬'

전남대 미술학과 등 지역 대학 5곳 졸업전...12월 15일까지 ACC

전남대 미술학과(서양화전공) 등 지역대학 5개 학과 학생들의 졸업 전시가 마련돼 눈길을 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 ACC)은 12월 15일까지 ACC 문화정보원 대나무정원에서 'ACC 예술대학 졸업전시 -오색윤슬'을 연다.

전시는 광주대 사진영상학과, 순천대 영상디자인학과,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전공,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 및 산업디자인학과 등 총 5개 학과가 참여한다.

이번 전시는 ACC가 문화예술창·제작자 발굴 및 육성에 기여한다는 취지로 마련됐으며 호남 소재 대학 문화예술 관련 학과를 대상 공모를 진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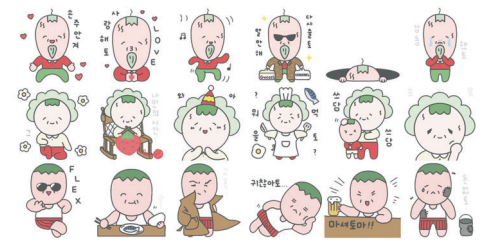
모두 105명이 참여하는 이번 전시 주제는 '오색윤슬'. 햇빛 또는 달빛에 비쳐 반짝이는 뜻의 '윤슬'에 다섯 가지 색의 의미하는 '오색'이 첨부됐다. 즉 '다섯 빛깔로 반짝이는 물결'이라는 뜻처럼 학생들이 갖고 묶은 기량을 통해 미래를 열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ACC는 전시공간과 학과별 전시 개막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오리엔테이션을 통해 논의해 왔다.

첫 전시는 전남대 미술학과 서양화전공(13일까지) 학생들이 '한 걸음을 말할 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연다. 이어 호남대 만화애니메이션학과(18-27일)의 '나아가다, Go Forward'와 산업디자인학과(11월 1-10일)의 'Be accomplish: 이루어'가 펼쳐진다. 다음으로 순천대 영상디자인학



이지후 작 'Code 511'



이보람 작 '토마토 가족'

과(22일-12월 1일)의 'Assemble: 집합', 광주대 사진영상학과(12월 6-15일)의 'Atmosphere: 비상(飛上)의 순간' 등이 예정돼 있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대학 졸업전시는 사회로 나가기 전의 예비 예술인들이 예술적 역량을 제고하고 전시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며 "관람객은 물론 문화예술계 관계자 등 다양한 사람들과의 소통을 통해 예비 예술인들이 성장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전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 도립국악단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오마주:사제'

12일 남도소리유풀터...19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전통예술의 전승·보존 측면에서 국악은 사제관계를 중시한다. 스승의 유파나 사사받은 소리별로 판소리 제(制)가 나뉘고, 계승하는 소리를 총체적으로 고려해 지역별 토리를 분류하기 때문이다.

전남도립국악단(예술감독 조용안)이 기획공연 '명인명창과 함께하는 오마주: 사제'를 오는 12일 남도소리유풀터, 19일 화순 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에서 펼친다.

조용안 감독은 "이번 공연은 재임 초부터 기획한 사제 동행 프로젝트 형식의 공연이다"라며 "국악계 명인들과 전남도립국악단이 스승과 제자의 연을 맺고 올해 상반기 동안 사사받은 작품을 선보이는 자리"라고 했다.

양일 공연은 서영호 아쟁명인이 새롭게 구성한 산조합주 '메아리'로 막을 올린다. 이어 부채춤과 어우러지는 안무가 불가리인 벽파임춤 '기인

여옥'도 레퍼토리에 있다. 옥같이 아름다운 여인의 자태를 가무악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남도민요 '홍타령' 가사를 정경진이 극화한 창작창곡 '상사, 눈물 속에 피는 꽃'도 양일 무대에 오른다. 이외 세련된 가락과 정교함을 기반으로 한 호남여성농악 '포장걸림'도 관객들을 만난다.

12일에만 볼 수 있는 작품은 '현천 소동패놀이'이다. 김향순이 구성했으며 현천소동패놀이 보존회가 특별출연, 풀베기·논매기 등 집단노동과 관련된 놀이 일체를 선보인다.

19일 무대는 진도씻김굿 '생과 사- 제석과 씻김'이 장식한다. 김태영과 신정악회가 호남 지역의 사령국인 진도씻김굿으로 죽은 이의 영혼을 천도하는 내용이다.

무안 공연 관람료 1만원, 화순 전석 무료.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 목관 앙상블로 듣는 '프랑스 실내악'

광주시향 '체임버 시리즈VI'

17일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

포레, 생상, 쇼송, 라벨, 드뷔시 등 뛰어난 음악가들로 대표되는 '프랑스 실내악'은 특유의 색채로 인해 널리 사랑받는 레퍼토리다.

광주시립교향악단(이하 광주시향)이 '체임버 시리즈VI'를 오는 17일 오후 7시 30분 광주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펼친다. 광주시향의 수·차석 관악 연주자들이 프랑스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목관 앙상블로 들려줄 예정이다.

막을 올리는 프랑스의 '플루트, 오보에, 클라리넷과 바순을 위한 목관 4중주'는 호른이 없는 목관 4중주 구성이다. 구성상 '중주'를 표방하나 목관 악기의 개성 있는 음색은 사실상 각각의 악기를 '독주' 형태로 만나는 즐거움을 선사한다.

이어 세 개의 소품집으로 구성된 이베르 작 '목관 5중주를 위한 3개의 작품'이 울려 퍼진다. 1930년대에 플루트, 오보에, 바순, 호른, 클라리넷을 위해 만든 이 곡은 7분 남짓 짧은 곡이지만 경쾌한 선율의 매력을 보여준다. 뛰어난 플루트와 바순 연주자, 작곡가로 명성을 날리던 드뷔엔드의 작품 '플루트, 바



광주시립교향악단 '체임버 시리즈VI' 출연진. 왼쪽부터 박소현(플루트), 송애리(오보에), 주민혁(클라리넷), 박병준(바순), 이철민(피아노), 이정현(호른). <광주예술의전당 제공>

순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도 관객들을 찾아온다.

대미는 실내악 편성 중에서도 규모가 큰 편인 플랑크의 '피아노와 목관 5중주를 위한 6중주'가 장식한다. 개성적인 선율과 음악적 유희가 깃든 곳이다.

이번 공연에는 광주시향 플루티스트 박소현, 오보이스트 송애리를 비롯해 주민혁(클라리넷), 박병준(바순), 이정현(호른), 이철민(피아노)이 출

연할 예정이다.

광주시향 관계자는 "프랑스 실내악 중에서도 목관악기 앙상블의 정수를 담은 무대를 마련했다"며 "이베르의 경쾌하고 색채적인 곡, 드뷔엔드의 소나타 및 플랑크의 개성 있는 선율이 관객들을 매료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전석 1만원, 티켓링크 예매. /최류빈 기자 rubi@



KSA 한국표준협회

ISO 21388

보청기적합관리 인증센터



국제보청기

## "고객에게는 신뢰와 만족"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